

새정치 전대 컷오프 통과...야당 지도부 호남명맥 이을 주자

“호남정치 복원 수권정당 창출” “非文·중도 지지 본선 1위 확신”

■ 당대표 도전 박지원

수권 정당 창출과 호남 정치 복원 등을 내세운 박지원 의원이 7일 실시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예비 경선에서 거뜬하게 본선에 진출했다. 박 의원이 예상대로 예비 경선을 통과한 것은 호남은 물론, 비노·중도 성향 중앙위원들의 지지가 결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예비 경선을 함께 통과한 문재인 의원과 다음 달 8일까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당권과 대권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두 번의 정권 창출 경험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심과 민심을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 진영에서는 자체 분석 결과, 대의원과 권리당원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

다며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대 초반 ‘진노(진 노무현) 견제’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다 호남 표심의 결집도 점차 확산되고 있어 박 의원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을 돌며 수권정당을 향한 박지원의 진심을 전하겠다”며 “당의 혁신과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집권 플랜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정권 교체는 호남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해 박지원의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 호남 정치의 부활과 호남 발전의 선봉에 서겠다. 지지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최고위원 도전 주승용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7일 실시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무난하게 통과함에 따라 본선에서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주 의원은 호남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다 김한길 전 대표 진영을 중심으로 한 비문(비문재인)진영과 당내 중도와 중앙위원들의 지지를 얻어 예상대로 컷-오프를 통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에서는 주 의원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득표로 컷오프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의원은 본선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전변형 의원 등과 1위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전대 초반 ‘문재인 견제’ 흐름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

도 비문·중도 성향의 주승용 의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 의원이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다면 차기 지도부 내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장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계파가 지도부를 장악하게 된다면 차기 정권 창출은 물 건너가게 된다”며 “어느 한 측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추 최고위원’으로 수권 정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남 정치 복원과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과 호남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호남의 숙원인 정권 창출의 선봉에 서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컷오프 통과자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로 선출된 후보들이 손을 들어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정청래, 이목희, 전병헌(이상 최고위원 후보), 박지원, 문재인, 이인영(이상 당대표 후보), 주승용, 유승희, 오영식, 박우섭(이상 최고위원 후보) /연합뉴스

차에 유리한 구도...李 완주 여부 최대 관심

■ 새정치 당권 '3파전'

새정치민주연합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차기 당권경쟁이 박지원·이인영·문재인 후보(기호 순)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7일 치러진 예비경선에서 이들 3명이 1차 관문을 통과한 반면 조지기만 면에서 상대적 열세가 겹쳐졌던 박주선·조경태 후보가 이번을 연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박주선 후보는 뒤늦게 경선에 참여하며 예비경선 직전까지 ‘대선패배 책임론’을 쟁점화하는 등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예비경선 특징인 계파 중심적 투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투를 삼켰다. 이제 세 후보는 한 달간의 일정으로 펼쳐지

는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세력 등 구 민주계와 호남, 이 후보는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과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문 후보는 진노(진노무현)계 등을 기반으로 지지세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들어서는 임기 2년의 새 지도부는 내년 총선 공천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로, 당권 향배에 따라 제1야당의 세력 지도는 물론 야권 전체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계파별로 사활을 건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이날 예비경선 결과는 박지원 후보에

게 유리하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지층이 겹치는 박주선·조경태 의원의 예선 탈락으로 비노(비노무현) 및 비문(비문재인) 세력의 전면적 지원을 받기 쉬워진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예비경선 직후 박 후보는 “박주선 의원과는 이미 단일화에 합의했고, 조경태 의원도 그동안 대화, 협력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전) 상당히 좋은 구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후보의 경우 문 후보와 지지층과 겹친다는 분석이 많아 박 후보 측을 고무시키고 있다. 물론 세대교체를 내건 이 후보가 박·문 후보를 모두 ‘과거세력’으로 규정, 각을 세우고 있어 ‘문(문재인) 대 비문 전선’은 다소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이 후보와 문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판을 뒤엎을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86그룹이 그동안 주류 측에 ‘기생’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대해 사과까지 한 마당에 이는 ‘항복 단일화’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문 후보 측은 상대가 누가 되도 승리를 장담하는 분위기가, 비노 측의 결집력이 진노에 비해 느슨한데다 과거 ‘이-박(이해찬-박지원)’ 담합 논란에 휘말렸던 박 후보에 대한 회의적 정서도 없지 않아 일시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낯은 과거와의 결별’을 내세워 전면적 세대교체 돌풍으로 파란을 일으키겠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당심의 근원지인 호남에서의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당 쇄신 노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광주시당위원장

박혜자 의원 출마 선언

강기정 의원 출마 뜻 접어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구 갑·사진)의원이 7일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를 고민했던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은 출마의 뜻을 접어 사실상 박 의원의 단독 출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2016년 총선 승리와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광주시당에서부터 만들어내야 한다”며 “광주 최초의 여성 시당위원장이 돼 섬세하고 낮은 자세로 광주시당을 변화의 모범이자 중심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합과 화합으로 더 커지는 광주시당, 시민과 당원을 섬기는 광주시당을 만들겠다”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당 권한의 지역 이양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위원회,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방의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 아카데미 개설, 맞춤형 당원교육 등 광주시당을 새로운 인재발굴과 양성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마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던 강기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당을 분권형 정당의 기동과 풀뿌리 생활 정당으로 변모시켜 내는 기치를 내걸고 출마를 고민했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당원들의 현재적 고민 속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론화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등 시당위원장 출마 준비가 덜 됐다”며 불출마의 뜻을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바람잘날 없는 與지도부

여의도연구원 임명·당협위원장 선출 이어

靑쇄신론·개헌론 놓고 친박-비박 또 충돌

새해벽두 새누리당 지도부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100% 여론조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지다 급기야 7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정윤회 문건’ 검찰 수사발표 후속조치와 당·청관계, 개헌론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짜리시 수준의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돼 연방 정국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비서실장인, 담당 비서관이든, 비선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관련됐던 몇몇 사람들은 부득이 쇠신차원에서 인사조치를 해야 책임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그런 것(청와대 눈치보기)은 없다”고 해명한 뒤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등 3자가 함께 공유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국회 운영을 했다”면서 “청와대와 조율은 하겠지만 기본 스탠스는 당이 창조, 주도, 능동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헌론을 주도하는 이재오 의원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의 요구로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개헌특위 구성 요구에 당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새우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1호 B106호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편입생 모집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학과	4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4	
사범	유아교육과	3	1
예능	음악학과	6	2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1.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5. 1. 26(월) ~ 2. 2(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② 전형일 : 2015. 2. 4(수) 오전 10:00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1. 지원자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0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00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